

특 집

양돈장 설사병 피해와 사후 관리요령

설사병 사후관리- 자돈관리 요령

노재욱 박사
피그텍 연구소

해마다 발생하는 유행성 설사병이 올해는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월을 전후하여 발생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일부 농장에서 발생을 보이고 있다.

유행성 설사병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발생하는 일종의 풍토병처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확실한 해결책은 없어서 고민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이다.

현재 많은 농장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회에 걸친 백신접종이라든지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하더라도 질병의 유입을 막기가 쉽지 않다.

물론 개증에는 오랫동안 설사병이 한번도 발생을 하지 않은 농장이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농장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농장에서 일단 설사병이 발생하면 설사하는 자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제한 되거나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신통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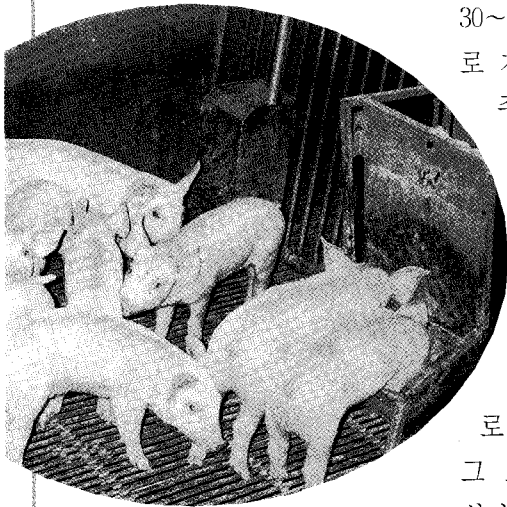
먼저 설사병이 발생하고 나면 자돈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 포유자돈의 경우 가장 피해가 크고 이유자돈이나 육성돈, 모돈의 피해는 적은 편이다.

설사병 사후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고를 부탁 받았을 때 과연 농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으며, 지금까지 농장에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자고 하였는데 가장 좋았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농장은 설사병 발

생시 인공감염으로 질병을 중식시키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자돈의 관리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이 다시 포유 자돈에서 발병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질병발생시에 자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돈의 체력 혹은 기력을 보강해 주어 스스로 사료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1. 질병 발생시에 자돈의 관리

먼저 7일령 이내의 어린 일령의 포유자돈은 설사로 대부분 죽게 마련이어서 별로 할 일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만성의 감염을 보이는 농장에서는 포유자돈의 설사가

심하지 않으므로 자돈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사증을 보이는 분만 돈사는 먼저 돈사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모돈의 경우 18~19℃ 전후의 온도가 요구되나 자돈의 30~31℃의 온도를 요구하므로 자돈에 필요한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돈사 내부 온도를 올려야만 하는 경우에는 모돈의 무유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설사하는 자돈은 모돈의 젖을 정상적으로 포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돈은 무유증에 걸리기 쉽다.

무유증에 걸린 모돈의 자돈은 설사병에 의한 설사가 끝나더라도 젖의 섭취불량이나 대장균증에 의한 설사로 인하여 생존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무유증이 발생한다면 정도의 차가 있지만 심한 경우 설사증에 의한 피해보다 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질병 발생시 모돈의 사료량을 가감하여 주어야 한다.

설사하는 자돈은 탈수증과 저혈당증에 의해 위축되고 쇠약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해질 제제의 투여와 포도당 등의 투여가 필요하다. 이런 제제의 투여는 자돈이 먹기 쉽도록 급이기에 소량씩 자주 따뜻하게 하여 투여하는 것이 좋다.

질병발생시에 자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돈의 체력 혹은 기력을 보강해 주어 스스로 사료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자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양질의 사료를 전해질 제제와 함께 사료를 물에 개어 주는 것이 좋으며, 유산균 제제 등 각종 미생물 제제의 투여도 설사병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나 영양제의 복강 투여는 일부 도움이 되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질병 발생후의 자돈의 관리

대부분의 경우 설사병의

양돈장 설사병 피해와 사후 관리요령

발생시에 인공감염의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설사병은 그치게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종류의 설사병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균성 설사증과 원충성 설사증으로서 일반적으로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생하는데 자돈이 가진 대장균이 인공감염을 통하여 모돈에 감염되어 증폭되고 다시 자돈에 재감염 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평소에 자돈이 보유한 대장균의 종류가 문제시 되지 않았다면 인공감염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장균증에 의한 설사가 약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

서 농장에서는 다시 인공감염의 방법을 택하게 되어 만성감염의 형태로 발전하는 농장이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하고 항생제의 선택도 감수성 검사를 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대장균증의 설사를 막기 위하여 대장균 백신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돈의 경우 18~19℃ 전후의 온도가 요구되나 자돈의

30~31℃의 온도를 요구하므로 자돈에 필요한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돈사 내부 온도를 올려야만 하는 경우에는 모돈의 무유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설사하는 자돈은 모돈의 젖을 정상적으로 포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돈은 무유증에 걸리기 쉽다.

이런 경우 농장에서는 다시 설사병의 재발로 생각하게 되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첫째, 대장균 설사증의 경우 인공감염후 1개월 전후로 발

사하는 자돈에 항생제를 주사하면 치료가 되나 심한 경우는 항생제 주사에도 전혀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장균 백신은 이런 설사증의 방어에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둘째, 원충성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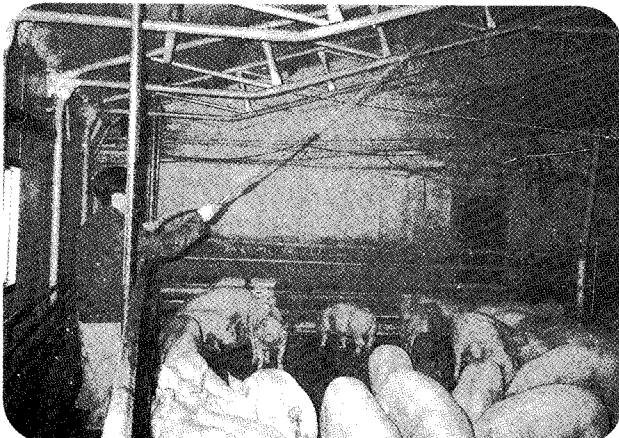
평소에 포유자돈에 콕시들킴 원충이 감염되어 있었던 경우 자돈의 장을 갈아 모돈에 먹이므로 모돈이 다시 원충을 많이 배설하여 자돈에 감염시

대부분 이시기의 설사를 조사해 보면 다시 유행성 설사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반 정도 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래

◀농장에서 설사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 먼저 원충성 설사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면 대장균성 설사도 발생이 줄어들며, 자돈에 콕시들킴 치료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양돈장 설사병 피해와 사후 관리요령



●설사가 다시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접촉에 의해 전파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리자의 개별적인 차단방역 의식이 중요하다.



키는 경우이다.

1주령 전후에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장균성과 원충성 설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2주령 전후에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충성 설사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

따라서 농장에서 설사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 먼저 원충성 설사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면 대장균성 설사도 발생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자돈에 콕시듐 치료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3. 질병 발생후 방역관리

모든 종류의 설사는 사람이나 기구, 공기, 자돈간의 접촉에 의하여 전파된다.

유행성 설사병이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기나 사

람에 의하여 급속도로 전파되지만 인공감염을 실시하여 질병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없어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사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일부 자돈에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관리자와 자돈간의 접촉에 의하여 전파된다. 농장에서 설사병이 다시 재발하는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일부 복의 자돈에서 설사가 발생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주위의 분만틀을 따라 설사가 번지기 시작하며 치료를 담당한 관리자의 움직임에 따라 인근의 분만방이나 분만사에서 설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설사 발생일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피해 정도는 약 10% 내외에서 발생한다.

필자가 농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대개 위와 같은 경로를 가진다.

그러므로 설사가 다시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접촉에 의해 전파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리자의 개별적인 차단방역 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설사가 발생하는 자돈의 치료는 일과시간의 마지막에 구성하는 것이 좋고, 접촉시 신발과 기구, 옷 등은 별도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설사하는 분만 모든의 분만틀은 격리되게 조치하면 도움이 된다. **양돈**